

광주독립영화제가 뽑은 '광주의 배우' 임성재

“평생 연극하며 연극배우로 남고 싶어”

지난달 열린 광주독립영화제(집행위원장 조대영)에서 새롭게 선보인 섹션이 있었다. '광주의 배우'다. 열악한 지역 독립영화계 현실에서는 배우를 구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다.

대부분 무보수로 출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영화제측이 '광주의 배우' 섹션을 만든 건 힘든 여건 속에서 '내일처럼' 함께 해주는 배우들을 응원하기 위해서였다.

그 첫 주자는 연극배우로, MC로 활동하고 있는 임성재(29)씨. 광주의 감독들이 요청할 때면 흔쾌히 함께 작업에 참여하며 힘을 보태는 그에게 지역 영화계 인사들이 작은 선물을 전한 셈이다. 영화제에서는 이동석 감독의 '뒤편도 하키엔 너무 더운 날씨'(2010), 유영상 감독의 '전역날'(2013) 등 모두 4편이 상영됐다.

독립영화를 찍던 임 씨는 연기에 대한 갈증으로 극단에 들어가 연극배우가 됐고, 이후 이벤트 MC, 방송 진행자로 활동 반경을 넓혀가고 있다. 잠시 연극을 쉬고 있는 요즘에는 비엔날레 퍼포먼스 등 흥미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문화적 자산을 키워가는 중이다.

지난달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예술극장이 제작한 소리동화 '부케티노'에 '노이즈 메이커'로 참여했다. 집대에 누워서 듣는 작품으로 회자를 모은 '부케티노'는 스토리 텔러가 동화 속 다양한 인물을 목소리로 연기하는 작품이다.

스토리 텔러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사실감을 부여하는 이가 바로 공연장 밖에서 다양한 효과음을 만들어내는 '노이즈 메이커'다. 관객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노이즈 메이커는 다양한 소품과 목소리를 이용해 숲속에서 낙엽 밟는 소리, 덩치 큰 괴물이 계단을 오르내리는 소리, 음식 먹는 소리 등을 만들어 내며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역할을 한다.

“처음에는 배우라기 보다는 기술자를 뽑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며 몇차례 고사하다 참여하게 됐다. 평소애 작업했던 연극이나



아시아예술극장이 제작한 소리동화 '부케티노'에 출연한 임성재씨.

**독립영화 20여 편에 출연
이벤트 MC·방송 진행자
광주비엔날레 퍼포먼스 참가
소리동화 '부케티노'에선
노이즈 메이커 목소리 연기**

독립영화의 연기와는 완전히 다른 역할이어서 호기심도 있었다. 내가 만들어내는 소리로 연기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참여했다. 이탈리아 연출자와 함께 작업하면서 배운 점도 많다. 배우가 연기를 하려면 여러 감각을 키워야 하는데 이번엔 연극에 필요한 감각을 잘 배웠다고 생각한다.”

고교 동창인 이동석 감독의 단편영화에 출연하며 연기를 시작한 그는 지금까지 독립영화 작품만 20여편을 찍었다.

극단 크리에이티브 드라마에 들어가 '가정식 백반 맛있게 먹는 법' 등의 작품을 무대에 올리며 본격적으로 연기를 배우며 행복하기도 했지만 '생활'에 발목이 잡혀 지금은 연극과 잠시 멀어져 있다. 대신 케이블 TV 볼링대회 캐스터를 맡기도 하고 이벤트 MC와 방송일을 꾸준히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꼭 연극판으로 돌아갈 마음을 먹고 있다.

최근에는 광주비엔날레 20주년 기념 특별전 '달콤한 이슬'의 퍼포먼스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색다른 경험도 했다. '부케티노'도 당시 예술의 거리에서 열린 퍼포먼스를 지켜보던 예술극장 관계자의 추천으로 참여하게 됐다. 요즘에는 야간에 일이 없을 경우엔 수학여행 불침번을 서는 아르바이트도 한다.

“평생 해야 할 게 연극이고, 연극배우로 남고 싶다. 쉽게 지쳐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잠시 연극과 떨어져 있지만 마음엔 항상 연극이 담겨 있다. 극단에서 활동하며 참 많은 것을 배웠다. 최근에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또 색다른 경험을 하고 있다. '부케티노'에 참여하면서 스물 세 살 현장 PD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을 장악하는 걸 보고 많이 놀랐다. 기획마인드가 부족하다는 것도 깨닫게 됐고,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며 차곡차곡 쌓아서 좋은 배우가 되고 싶다.”

임씨는 인터뷰 후에도 일주일 동안 두 편의 독립 영화 촬영이 예정돼 있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문화전당, 문화교육가 양성 프로그램 참가자 접수

문화교육가(에듀케이터) 양성 프로그램이 오는 2015년 1월 21일부터 1월 30일까지 아시아창작스튜디오(옛 광주광역시 서구청사)에서 진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과 아시아문화개발원(원장 최종만)은 2015년 개관을 앞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전당운영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민주평화교류원, 문화정보원, 문화창조원, 예술극장, 어린이문화원 등 5개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원에서는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문화교육가(에듀케이터)' 양성 프로그램은 이와 같이 전당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를 기획·제작하고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문화교육가 양성 프로그램에서는 기초

이론 교육, 현장 탐방 및 프로그램 견학, 기획실습 워크숍을 통한 사례 연구와 기획실습을 병행한 역량 강화 중심의 교육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은 교육학, 아동학, 유아교육학 및 문화예술 관련 전공자 또는 문화교육가 업무 유경험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모집인원은 10명 내외이고, 수강료는 무료.

참가 지원서 접수는 15일 ~ 31일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시아문화개발원 웹사이트(www.iacd.kj)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 062-234-1084.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출판계 대형 작가들 신작 쏟아진다

이문열·김훈·박민규 등

연말·새해 잇따라 출간

이문열·김훈 등 국내 유명 작가들이 연말과 새해 신작을 잇따라 선보인다. 박민규와 김애란도 장편소설을 들고온다.

연말과 새해를 맞아 출판계에 풍년이 들었다. 우선 젊은 작가들의 '출판 러시'가 눈에 띈다.

박민규는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이후 6년 만에, 김애란은 '두근두근 내 인생' 이후 4년 만에 장편을 선보인다.

올해 이상문학상을 받은 편혜영도 계간 문학동네에 연재했던 '선의 법칙'을 다음 장편 소설로 출간한다. 방송 진행자 등으로 다양하게 활동하는 소설가 하성란도 장편소설을 선보인다. 또 다른 40대 여성작가 조경란도 장편소설을, 정이현은 소설집과 에세이를 각각 선보인다.

50대인 '세월'의 김형경도 장편소설을 낼 예정이다. 이신조는 장편소설 '역사 속의 나그네'의 구병모는 소설집을 낸다. 남성 중견작가로는 정찬이 장편소설을, 전성태가 소설집을 준비 중이다. 교수이자 소설가이며 시인인 이장욱의 소설과 '마담뽕'의 소설가 백가흠의 신작 소설집도 대기 중이다.

손아람, 김희선, 해이수, 박정운, 이현수, 김이설, 강지영, 서하진, 안보윤, 조현 등의 신작 장편 혹은 소설집도 올미년을 맞은 독자들에 기대를 부풀린다.

올해 1960년대 한국사회를 그린 대하소설 '변경'의 개정판을 펴낸 이문열은 내년 10월쯤 소설집을 낼 예정이다. 대하소설을 준비 중인 그는 몇 편의 단편을 묶어 출간한다.

김훈의 소설집도 나온다. 문학동네 겨울호에 실렸던 '영지'를 비롯해 네 편의 단편이 이 소설집에 실릴 것으로 보인다.

암 투병 중인 복거일이 쉬는 대신 대하소설이라는 강행군을 선택했다. 모두

6권으로 이뤄진 대하 장편소설 '역사 속의 나그네'가 상반기 선보인다.

소설가 임철우와 최수철의 소설도 출간된다. 두 소설가의 작품은 단편 묶음이나 연작소설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지만 한 편의 장편소설로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견 이인성도 오랜만에 소설집이나 연작소설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소설가 황석영은 자신의 소설 대신 다른 작가의 좋은 소설을 소개한다. 문학동네 네이버 카페에 3년 동안 연재한 '황석영의 한국 명단편 101'을 문학동네와 함께 출간한다.

문학동네는 정현중 시인의 등단 50주년을 맞아 시집과 산문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마중가, 최승자, 송재학 시인의 시집도 내년 5월까지 출간된다.

이밖에 동서문학상 수상 작가인 허수경, 미당문학상 출신의 송찬호 시인, 김수영문학상을 받은 김경주 시인의 신작도 출간된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백제의 龍을 만나보세요”

나주문화재연구소, 오늘 정촌고분 발굴 성과 공개설명회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소장 이상준·이하 연구소)는 현재까지 발견된 백제 금동신발 중에서 가장 완벽한 형태를 간직한 유물이 출토된 나주 정촌고분 발굴 현장에서 16일 오후 2시 일반인을 대상으로 발굴 성과 공개설명회를 개최한다. 정촌고분 안 3기의 돌방무덤 내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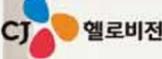
대해 진행된 올해 발굴조사에서는 금동신발(사진), 금제 귀걸이, 금제 장신구 등 중요 유물이 발견됐다.

특히 금동 신발은 바닥에 연꽃, 도깨비 또는 용 문양 등이 화려하게 장식돼 있었다. 무덤의 주인공이 같은 시기 백제, 가야, 신라, 왜 등 여러 지역과 교섭

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 수 있는 유물들도 발견됐다. 연구소는 내년에는 고분과 매장시설의 축조 순서와 분구 끝자락에 방형으로 시설된 석축의 축조 방법에 관해 조사할 예정이다.

연구소 관계자는 “앞으로 나주 정촌고분에서 출토된 유물과 유구에 대해 국내·외 비교 연구와 인골 DNA 분석과 같은 자연과학적 분석 등 다각적인 연구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문의 061-339-1114.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내 아이가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실시간 우리집 안심 지킴이 홈CCTV 헬로캠 탄생!

월 7,000원 (부가세 포함 7,700원)

※출시기념 혜택 지금 가입하시면 16GB SD카드 증정(1,000대 한정)
- 3년 약정, 인터넷 결합 기준 / 무선공유기 임대료 별도



“학교 잘 다녀왔어?”



“숙제는 잘 하고 있지?”



“오늘 간식은 뭐 먹었?”

www.cjhelloworld.com